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제가 하대동본당 보좌 신부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진주지역 교정사목이 하대동본당에 맡겨진 관계로 한 달에 한 번 진주교도소에 미사를 봉헌하러 갔었고 그곳에서 조폭 행동대장 출신의 에드몬드라는 젊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면담 끝에 제게 편지를 해도 되겠느냐고 묻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렇게 그와의 펜팔(?)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은 것이 시간이다 보니 그 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보냈고 저는 답장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솔직히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부님은 말씀하실 때마다(입만 열면) 사랑, 사랑 하시는데 정작 실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라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텃밭이기를 교회 목사님은 틈틈이 재소자들에게 양말이며 내의며 간식거리들을 사다 주시는데 신부님은 해준 게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불에 덴 것같이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그 이후로 종종 양말, 속옷, 간식거리 등등 그 친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내주었고 그 친구가 춘천교도소에 이감을 간 후에도 긴히 의논할 일이 있다며 면회를 와달라는 부탁에 단 10분간의 면회를 위해 왕복 10시간을 달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한참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몇 해 전부터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요한 4,16) 제 사제 서품 모토이고 그 친구의 지적처럼 입만 열면 여전히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만큼, 아니 1/100, 1/1000만큼이라도 실천했다면 벌써 제 머리 뒤에는 동그란 테가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의 홍수에 갇혀 제대로 된 실천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이면서 사제인 저는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하시니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사랑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역대 최장, 최악이라는 장마와 태풍과 같은 재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숨과 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만이라도 다하여 주위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저의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느님이시고, 입에만 달린 사랑,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랑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기에.

고맙습니다.



윤행도 가톨릭 신부 | 금산본당 주임



제 1 독 서 탈출 22,20-26
화 답 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 2 독 서 1테살 1,5-10
복 음 마태 22,34-40

주일 진레

지나고 나면 결국 웃어넘길 수 있는 것들

김순화 베로니카 시인/ 가톨릭 문인회

다시 가을이다. 이맘때쯤 주말이면 어김없이 등산 장비를 챙기고 가을 산행을 한다. 내가 가을 산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연이 주는形形色색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도 있지만, 빛을 받다 떨어진 낙엽들을 밟으며 올라선 산 정상에서 그동안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삶의 시간들을 묵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번뇌가 참 많았던 시간이었다. 직장에서 부장의 소임을 맡으며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았고, 다른 부서와 뜻이 맞지 않을 때면 의도치 않게 무례한 언행이 오가며 상대와 감정이 부딪히는 일도 종종 있었다. 사회적 위치가 내게 주는 무게감이 컸을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컸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춰 타인의 의견을 함부로 평가하고, 예민하게 나와 다른 이들을 배척했던 것 같다. 결국 모든 일은 잘 이루어졌지만, 서로 이해되지 않은 곳에는 미움의 흔적만이 자리했다.

자의식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웠던 것 같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와 관념에 스스로 사로잡혀 타인이 들어올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 놓인 '6'의 숫자가 내 입장에서는 '육(6)'이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구(9)'로 보일 수 있듯이, 내가 옳다고 하여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니다. 내 생각이 옳다면 상대의 생각도 옳다. 다만 내 이해 안에서의 방법과 다를 뿐이다. 만약 내가 상대의 관점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롭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모든 일에는 누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자기만의 이유가 있다. 상대의 사정을 알게 되면 한때 나의 옳음이 미안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선불리 타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나와 뜻이 맞지 않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설령 이야기를 들어도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지 못할 때는 차라리 내 마음에 상대에 대한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두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해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당장 삶의 문제들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가. 인생의 거대한 항해를 하면서 노를 젓다가 놓쳐버리면, 오히려 더 넓은 물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세상사 지나고 나면 결국은 다 웃어넘길 수 있는 것들이다.

사도행전 읽기 14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예루살렘 사도 회의(15,1-21)

안티오키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자, 그들과 바오로 및 바르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도 15,5에 따르면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중시하던 바리사이파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안티오키아 교회는 예루살렘에 대표를 파견하는데, 이렇게 열린 것이 사도 회의, 곧 첫 공의회입니다.

사도 회의에서 베드로는 체험(사도 10,1-48)을 바탕으로 하느님이 아무런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분이니, 자신들과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하던 율법과 할례의 멍에를 이방인에게 씌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마치 바오로의 로마서와 갈라티아서를 보는 듯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아모 9,11-12를 인용해 다른 민족 가운데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 그리고 불륜을 멀리하는 것은 예부터 회당에 다니던 개종한 이방인도 배워 아는 것이니(사도 15,21),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도는 유다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배려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야고보의 제안입니다.

야고보의 중재안이 통과되면서, 큰 틀에서는 이방인에게 더 이상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그리스도교는 더 이상 율법과 할례 중심의 유다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길임이 드러납니다. 바오로도 갈라 2,1-10에서 사도 회의에 대해 증언합니다.

안티오키아로 돌아감(15,22-35)

사도들은 안티오키아로 편지를 보내어 회의 결정 사항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모두 기뻐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갈라 2,11-14에서 바오로는 이에 대한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전해 줍니다. 사건인 즉 사도 회의 후 베드로가 안티오키아 교회를 방문하였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올라오자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끊은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따라 나머지 유대인들과 바르나바도 이방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에 바오로는 공공연히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는데, 율법과 할례 문제로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설파합니다. 사실, 사도 회의 이후에도 율법과 할례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바오로 서간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안티오키아 전경



사진출처: 가톨릭평화신문

해녀, 그리고 수녀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사진출처: YES24

꼬마 해녀와 물할망, 그림책. 글, 선자은. 그림, 윤정주.

바닷속 깊은 곳에 착한 물할망이 살았습니다. 늘 혼자여서 심심했던 물할망은 불턱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해녀들과 함께 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할망은 해녀처럼 꾸미고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해녀들은 모두 놀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해녀처럼 보일까?

물할망은 해녀들이 가지고 다니는 망사리와 테왁을 눈여겨보고, 전복을 딸 때 쓰는 빗창도 봤습니다. 그것들을 가져야만 해녀 행세를 할 수 있다고 믿고 몰래 잠시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망사리를 살펴보던 꼬마 해녀에게 걸려 버렸습니다.

미, 미안, 나도 너처럼 훌륭한 해녀가 되고 싶어서 그래.

훌륭한 해녀가 되고 싶다는 물할망의 말에 꼬마 해녀가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해녀는 차가운 물속에서 오래 견뎌야 해요. / 그건 자신 있어! 사실 난 물할망...

참! 요즘 나쁜 물할망이 나타나서 해녀들을 잡아하려고 한데요. 조심하세요.

입속에 물숨구슬이 있어 물속에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물할망은, 자신이 물할망임을 숨긴 채 숨 가쁜 척하며, 꼬마 해녀가 보여주는 대로 숨 참는 연습을 따라 했습니다.

해녀는 헤엄쳐서 깊은 곳까지 갈 수 있어야 해요.

너무도 쉬운 일이었지만 힘든 척하며, 물할망은 두말없이 꼬마 해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해녀는 숨비소리를 잘 내야 해요. / 숨비소리가 뭐지? 그래, 바로 그거구내!

자신이 모르는 것, 숨비소리가 바로 해녀들의 비밀이라고 생각한 물할망은 멀찍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물에서 갓 나온 해녀들은 참았던 숨을 내뿜으며 가늘고 긴 소리를 뿐아냈습니다. “호오이~ 호오이~” 물할망도 흉내내 보았지만 도무지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에 들어가서 소리를 캐 오세요. / 에이, 소리는 무슨! 전복을 캐 오마.

큰 전복 하나가 눈에 띄었지만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어 딸 수가 없었습니다. 꼬마 해녀와 함께 바다로 들어간 물할망은 얼마 후 드디어 전복을 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꼬마 해녀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해파리에게 쏘여 까무러친 것이었습니다. 물할망은 해파리를 쫓고 꼬마 해녀를 끌어안았지만 꼬마 해녀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째? 이러다 죽겠네.

물할망은 물숨구슬을 뺏어 꼬마 해녀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잠시 뒤 꼬마 해녀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숨구슬이 없는 물할망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꼬마 해녀를 안고

물낮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 영영 못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호오이~ 호오이~

간신히 물낮에 닿자, 물할망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참았던 숨을 힘차게 내뿜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하늘나라 새가 부르는 아름다운 노랫소리 같은, 가늘고 긴 숨비소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물할망은 진짜 해녀가 된 것입니다.

아니, 물할망이 사람을 구했네!

모두가 일을 끝냈는데 난데없는 숨비소리가 나는 걸 듣고 해녀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호호호, 히히히, 으하하하

그 뒤에도 해녀들은 불턱에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습니다. 물할망도 함께요.

숨비소리는요...

0.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나만의 색깔, 개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도자다움이라는 한 틀에 넣을 수도 없고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개성을 억누르면 '나의 토대가 사라지고 그렇게는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1. 같은 삶, 그러나 더 깊은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치셨으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적 권고'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권장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수도자들은 이 권고에 따라 더 확고히, "고정된 생활 양식" (교회법 573조 1항)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도자는 교회의 교계 조직이 아닌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교회법 207조) 속합니다. 그렇게 수도자의 모습은, 지금, 여기에 있는 교회 영성의 척도입니다.

2. 숨구슬을 만듭니다.

해녀들은 처음엔 해초를 캐고 능숙해지면 깊은 바다에 들어가 전복 같은 해산물을 캐니다. 아무런 잠수 장비 없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고 고된 일, 그러나 바다를 사랑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기에 뛰어듭니다. 해녀들도, 수도자들도, 더 깊은 곳에서 더 견뎌내는 만큼, 마치 못해가 아니라 사랑으로 견뎌내는 만큼, 생명력을 머금은 숨구슬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등진 곳이 아닌, 세상 더 깊은 곳에서 영글어 냅니다.

3. 숨비소리

해녀들이 물의 귀신 물할망같이 물숨구슬을 만들어낼 수는 없듯, 수도자는 완덕을 추구하지만 성령의 완전한 숨구슬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깊은 바다와 깊은 삶으로 물질을 할 때마다, 금세라도 툭 터질 것 같은 숨구슬 방울을 만듭니다. 숨이 턱에 닿도록 만들어낸 숨방울을 세상을 향해 뱉어낼 때, 마치 하늘나라 새가 부르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같은 숨비소리, 세상을 깨우고 생기있게 만드는 숨비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리석은 자여, 인간은 숨을 안 쉬면 죽어. -드라마, 단 하나의 사랑, 1화.

그런 귀하다귀한 숨을 걸고 사는 삶, 그래서 참 많이 힘들지만, 그래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해녀 '님'들이, 그리고 수녀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구장 동정

사제평의회

일시: 10월 27일(화) 10:30
장소: 교구청

고성가르멜 사제관 축복식

일시: 10월 29일(목) 11:00

견진성사

일시: 10월 28일(수)
장소: 의령성당
집전: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교구/본당

사무장 연수

일시: 10월 27일(화) 13:00~29일(목)
진주, 거제지구,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준비물: 필기구, 세면도구, 개인 마스크, 개인 간식, 개인컵
문의: 사무처 055·249·7016~7
※ 코로나19로 인해 식음료 나누기는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심화과정

일시: 10월 31일(토)
장소: 교구청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신학생 부모피정

일시: 11월 1일(주일) 09:30~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준비물: 주일미사 준비
문의: 성소국 055·249·7061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일시: 11월 7일(토) 13:00~8일(주일) 15:30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통독범위: 요한 묵시록
대상: 성경에 관심 있는 청년
참가비: 1인 6만 원
준비물: 성경(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 전자기기 어플 제외), 필기구, 마스크, 미사 준비, 세면도구(수건), 텀블러, 시계
신청: 11월 1일(주일)까지,
선착순 20명 마감(전원 1인실)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위원회/기관/단체

정의평화위원회 회의

일시: 10월 28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진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205차 ME주말 안내

일시: 11월 13일(금) 19:00~15일(주일) 17:30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p> <p>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신세계 피부비뇨기과</p> <p>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p> <p>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p> <p>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p>	<p>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p> <p>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p> <p>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p>	<p>SM 수맥홍(홍)침대</p> <p>주보 차담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p> <p>평화방송 · 신문 광고 중 1588-5335</p>
	<p>가톨릭마산</p> <p>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p> <p>문의: 미디어국 055)249-7072</p>	<p>진해시니어클럽 자연습</p> <p>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p>	<p>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p> <p>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 2중 세트 10개 1박스 / 3중 세트 6개 1박스</p> <p>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p>



일 립

신청: 11월 6일(금)까지, 전화 및 문자로 접수
(문자 발송시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E-mail: mun760216@hanmail.net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기 타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수도회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일정: 11월 11일~13일, 11월 22일~25일,
12월 5일~7일, 12월 11일~13일
연말연시/ 해넘이/ 해돋이 피정:
12월 31일~2021년 1월 3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2021학년도 살레시오성미유치원 신입 유아 모집

입학상담: 10월부터~11월까지
대상: 2015. 1. 1.~2017. 12. 31. 사이에 출
생한 유아
접수: '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문의: 살레시오성미유치원 055·297·6104
홈페이지: www.sungmi.org
※차량운행지역: 소담동, 중동, 서상동, 동정동,
도계동, 팔용동, 북면(감계, 무동아파트단지)

위령의 날 교구 합동 위령미사

일시: 11월 2일(월)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주례: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참석범위: 교구청 사제, 직원
※ 올해는 코로나19 관계로 고성 이화공원묘원에
교구청 사제와 직원들만 참석하여, 위령미사
를 봉헌합니다. 신부님들께서는 신자들과 함께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1월 1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010·9937·0901	대상: (만)19세~35세

교구 소식

故 김영식 알로이시오 신부 1주기 추모미사



故 김영식 알로이시오 신부 1주기 추모미사가 10월 19일 고성 이화공원묘원에서 총대리 최봉원 야고보 신부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자들이 제한되어,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외 사제 20명과 유가족 외 교우 30명이 미사에 참여하였다. 서정범 요한 신부(장평본당 주임)는 강론에서 죽은 이의 삶이 산 이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이날은故 이강해 스테파노 신부의 8주기이기도 하여 함께 기억하였다.

사랑이 머무는 곳-김원일의 『마음의 감옥』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마음의 ‘감옥’이라고 하니깐 벗어나야 할 마음의 고통을 떠올리기 쉽다. 마치 어둡고 깊은 병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김원일의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감옥’은 오히려 머물러야 하는 곳이다. 굳이 덧붙이자면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기억’이다.

작품의 내용은 이렇다. 소규모 출판사를 경영하는 ‘나’는 소련 모스크바 국제 도서 박람회에 참가했다가 돌아와, 동생 현구가 경북대 의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현구는 현재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고등법원에 항소 계류 중에 있는 상태로, 입원은 그의 병세가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구는 대학생 시절부터 운동권 학생으로, 3학년 때 징집을 당해 최전방 특수부대에서 톡톡히 고생을 한 후 노동 운동에 투신했다. 그러다가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음 감옥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두 차례 더 옥고를 치르고 마지막으로 올봄에 달동네 재개발 지역 철거 과정에서 철거반원을 구타한 일로 투옥된 것이다.

현구는 6·25 전쟁 당시 목사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에 태어났다. 그래서 어머니는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을 두고 ‘지 아버지와 함께 내 몸속에 있다’고 버릇처럼 말씀하신다. 그리고 감옥이 아닌 바깥세상에서도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현구가 들어앉을 감옥 한 칸을 마련해 두었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결국 현구는 병세가 악화되어 혼수상태에 빠지고, 이때 대학생들과 공원근로자로 이루어진 젊은이들의 농성이 시작된다. 현구의 상태가 절망적이 되었을 때, 그의 아내인 동수 엄마는 현구를 비산동 달동네로 옮기겠다는 뜻을 나에게 내비친다. 이미 젊은이들과 밀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달동네에서 빈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농성이 더욱 격렬해지면서, 경찰들은 병원 안에까지 최루탄을 쏘아댄다. 이때 네 명의 젊은이들이 나타나서 현구의 침대를 밀어 병원 뒤에 대어 둔 봉고차로 끌고 간다. 젊은이들과 함께 현구를 옮기면서 나의 머리에는 전류처럼 ‘이제 현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자신이 들어앉아 살아 숨 쉴, 감옥 한 칸을 짓기 시작했다’는 깨달음이 스쳐 간다.

형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다 선량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철부지 어린아이나 노망든 노인이나 정신병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경우에 없는 생떼를 쓰고, 걸핏하면 싸우고,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 도둑질도 하지요. 살아가는 데 너무 지쳐 마음마저 그렇게 삭막해져버린 겁니다. 그 어리광과 투정과 사나움을 탓하기에 앞서, 그의 괴로운 삶만큼 나도 그와 함께 아파하지 않으면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살인한 자식조차 조건 없이 사랑하듯,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루도 그들을 벗으로 여겨 여기에서 배겨내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처음은 봉사한다는 정신에서 출발하여, 희생의 보람을 깨우치다가,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종 된 자로서의 겸손으로, 자존심 따위는 잊어버려야 해요.

현구의 죽음이 나와 빈민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순교로 비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빈민 운동가로서의 현구가 그들을 대하는 자세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살인한 자식조차 조건 없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야말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님의 종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것이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현구. 어쩌면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빛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각자의 마음속에 지은 감옥은 그런 단순한 채무 의식이 아니다.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현구는 말한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길은 봉사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자존심까지 잊어버려야 하는 ‘사랑의 실천’에만 있다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고결한 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웃의 삶에 아파하는, 참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지어진 감옥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이 ‘감옥’이 결국 아픈 것은,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통해서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